

# 석탄의 종말 기후위기 종식 전환점

##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석탄의 종말이 시작됐다. 지난 9월 말 산업혁명의 진원지 영국에서 마지막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불이 꺼졌다. 최초로 석탄발전이 시작한 이래 142년 만이고 G7 국가 중 최초이다.

석탄은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귀중한 에너지원이었다. 새로 발명된 증기기관과 발전시설이 가동되면서 영국의 경제와 산업은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19세기 말~20세기 초 대영제국의 시대를 열었다.

산업화는 전 세계로 전파됐고 석탄은 20세기 경제발전의 동력을 제공했고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도 석탄은 세계의 전력생산에서 주된 열원으로서 전력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세계는 영국의 탈석탄을 계기로 석탄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며 10~20년 후엔 종말에 이를지 모른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주범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영국이 1882년 석탄발전을 시작한 이래 46억톤의 석탄을 태웠고 100억 4000톤의 CO2를 대기에 방출했다. 오늘 지구평균온도 섭씨 1.2

도 상승과 기후위기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전체 전력의 40%를 석탄발전이 차지했으나 불과 12년만에 이를 제로화했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탈석탄을 위한 영국 정부의 초당적 정책이 있었다. 그들은 2008년 기후변화법 2013년에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해 에너지법을 제정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도입이 정책의 최우선이었다. 석탄을 몰아낸 1등 공신은 재생에너지다. 지난 2010년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년 44%까지 늘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석탄이 가스로 대체되지 않았다.

영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앞선 정책을 지닌 나라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990년대 대비 2030년 68%, 2035년 78%이고 2050년 제로배출이다. 유럽연합의 2030년 55% 목표보다 훨씬 야심차다. 최근까지 50% 감축 성과를 냈고 향후 10년 사이에 추가 28% 감축을 실행해야 한다. 현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현 수준에서 태양광을 3배, 육상풍력 2배, 해상풍력을 4배로 확대할 재생에너지 확충계획을 실행 중이다. 2030년까지 전력분야에서 완전한 탈탄소를 지향해 가고 있다.

석탄은 지구촌 35%의 CO2 배출의 가장 큰 책임과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오염시키는 가장 더러운 에너지원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당한 미

래를 위해서 선진국들은 2030년 개도국들은 늦어도 2030년대 말까지 몰아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영국 캐나다 등 국가들은 2017년부터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을 결성해 탈석탄을 위한 국가간 연대와 협력에 나서고 있다. G7국가들과 유럽연합(EU) 국가 대부분은 2030년대 중반까지 구체적인 퇴출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정은 어떨까. 현재 국내 전력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가장 높고, 재생에너지는 7~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국가 중 최하위이다. 최근 정부가 수립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 석탄은 17%로 떨어뜨리고 재생에너지는 21% 정도로 높일 예정이다. 아직도 탈석탄과의 거리는 아주 멀고 재생에너지 도입 또한 유럽연합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 풀어야 할 숙제다. 국제적 흐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석탄을 한 자리 숫자로, 재생에너지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인류의 주력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이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있다. 영국의 탈석탄은 세계 많은 나라에 기후환경보호의 영감을 주며 전파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화석에너지로부터의 전환'을 합의한 만큼 2040~50년까지 탈석유, 탈가스의 길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社說

# 광주다움 통합돌봄 복지 영역 확대되길

## 고독사 예방효과 커

대한민국 복지의 롤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고독사 예방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동구2·더불어민주당)은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통합돌봄을 시작한 2023년 고독사 발생률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독사는 2019년 113건, 2020년 118건, 2021년 111건, 2022년 117건, 2023년 94건으로 감소했다. 2019~2023년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은 대구 14.9%, 울산 14.4%, 부산 3.1%, 인천 2.3%, 서울 1.5%이며, 감소한 곳은 세종 -7.7%, 광주 -4.5%, 대전 -2.1%로 광주가 전국에서 감소율 2위를 기록했다.

매년 1인가구가 늘고 있다. 젊은층의 1인 세대가 늘고 있지만 홀몸 노인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출범 2년 만에 긴급돌봄 등의 영역을 넘어 고독사 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둔다는 점은 앞으로 대한민국 복지를 이끌어갈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난 2023년 출범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 이후 1년 여 간 1만5276명에게 2만8000건의 맞춤 돌봄을 지원했다. 현재는 이웃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쪽방·달방 거주민들을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지원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존 2'를 운영 중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고립된 시민이 밖으로 나와 이웃과 만나고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활동들을 지원해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잇고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갈수록 짝짝해지는 세상에서 이웃과 소통하고 온기를 전하는 이상적인 복지정책으로 커가길 바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한국형 대표 복지정책으로 확대되길 기원한다.

# 광주 미래 좌우할 인공지능 2단계 사업

## 광주시, 소통으로 성과 이뤄야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광주시가 미래먹거리 예산확보를 위한 대응 상황실을 가동키로 했다. 지난 8월 열린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는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2조 3244억 원이 반영됐지만 총력을 기울였던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 등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인공지능 인프라와 기업과 시민의 일상에 인공지능이 자리잡는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은 광주가 찾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다. 광주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조원대의 SOC 사업 대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선택했다. 무모해 보였던 인공지능 산업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본격화됐고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다.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인공지능 산업을 광주시가 선점한 것이다. 광주를 세계적 수준의 국가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구축하고 인공지능 실증도시를 구현해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광

주시의 목표도 가시화됐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2단계 사업은 예산 삭감 위기에 처했고, 타 지역에서는 광주보다 더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서두르면서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주시의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은 이미 완성된 1단계의 인프라를 활용한 성과 창출과 확산을 통해 인공지능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사실상 광주 인공지능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다.

인공지능 1단계는 준비일 뿐 그것이 완성은 아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 산업이 주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것도 2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때 가능한 일이다. 광주시가 꿈꾸는 미래자동차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성사되기 어렵다. 광주시는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정부와 정권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오늘 광주시의 노력에 광주의 미래가 달렸음을 명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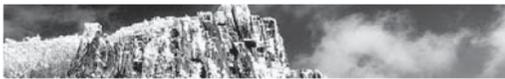
## 사진으로 보는 세상



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의 아트리움 헬스 앤피시어터에서 열린 한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이 미국 국기를 부르고 있다.

AP/뉴시스

## 서석대



높은 수수료율을 둘러싼 민간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공공배달앱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전국의 공공배달앱들이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광주 공공배달앱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올해 6월 기준 광주 공공배달앱 점유율은 17.3%로, 전국 평균 3.87%보다 5배 이상 높다.

이같은 성장세에 광주 공공배달앱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달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광주 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와 성과 등을 전국에 알렸다.

광주 공공배달앱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도 유명세를 탔다. 광주시가 KIA 타이거즈의 V12를 영입하며 한국시리즈 기간에 맞춰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평일 대비 주문 135%, 매출 138% 증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처럼 광주 공공배달앱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에는 광주시의 재정 투입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매년 5억원에서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

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대형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에서 벗어나 광주 공공배달앱으로 옮겨 가자는 '배민독립운동'을 전개한 것도 빛을 발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 자본력을 앞세운 민간 플랫폼을 상대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배달앱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 대형 배달 앱의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소상공인들은 지금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음식점 15만3000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지난해 광주지역 자영업 폐업률은 11.8%로, 인천(12.1%)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용 등을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의 횡포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의 역할은 매우 크다.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공공배달앱의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